

‘검증’ 없는 전달은 취재가 아니다

이샘물 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장

한때 시중에서 “내가 이러려고 OO 됐나 자괴감 들어”라는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다. 기자 사회에서도 “이러려고 기자됐나, 자괴감이 든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회자되곤 한다. 오래도록 지망해온 정치부에서 일하는 기자를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원하던 취재 분야를 맡았으니 만족하며 일할 줄 알았는데, 당사자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매일같이 정치인의 발언을 ‘기자라는 형식으로 고이 포장해 전달하는 일에 환멸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취재원이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든, 발화자가 이슈가 되는 인물이라 족족 옮기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해당 발언을 확산해주는 존재에 불과하게 되더라고 한다. 기자는 취재원에게 본인의 주장을 유통하기 위해 이용할 대상이자, 바이럴 수단 중 하나 정도로 간주되는 것 같더라고 했다.

단순히 취재 분야가 ‘정치’여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일까? 물론 취재원이 하는 발언이 억지스럽거나 부조리하게 생각될수록 그것을 전할 때 느끼는 자괴감은 클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본질은 발언의 ‘내용’이 아닌, 그 내용을 옮기는 수준에 그치는 ‘업무 역할’이다.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원의 발언이나 출입처의 자료를 옮기면서 시간을 보낸다. 정치인과 같이 사람을 주로 상대하는 기자들은 당사자의 발언을 기사화하지만, 정부 부처나 기업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매일 같이 쏟아지는 보도자료를 기사화하곤 한다. 보도자료에 고유의 취

재나 분석을 더해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기자들은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친다. 취재원이 한 발언이든 출입처 보도자료든, 그것을 옮기는 수준에 그친다면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정리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선 일맥상통한다.

부조리의 본질은 취재원의 발언 자체가 아니다. 취재원은 이해관계나 상황, 지식의 정도 등에 따라 제각기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의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정보의 전달 여부나 방식을 판단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아무리 고상하고 멋있는 발언을 하더라도 업무 역할이 그것을 단순히 옮기는 수준에 그친다면 자괴감을 느낄 법하다. 반대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것을 치밀하게 검증해내고 독자의 분별력 있는 판단에 도움을 주었다면 기자는 존재 가치를 빛낸 것으로 보람을 느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업무 역할’이다.

단순 전달은 취재가 아니다

기자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취재’란 무엇인가다. 많은 기자들이 취재가 단순히 어디선가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순 ‘전달’이지 취재가 아니다. 미국 언론연구소는 저널리스트들이 종종 업의 본질을 ‘사실들’뿐 아니라 ‘사실들에 대한 진실’을 찾아서 표명하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말했다.¹⁾ 이것은 ‘검증의 규율(Discipline of Verification)’이라고 불리는데, 발생한 사실을 ‘검증’을 거쳐 내보내는 것이 진정한 취재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기사가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친다. 누가 무슨 발언을 했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엇이 화제가 되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적당히 정리해서 옮기는 데에 그친다. 기사는 발생한 사실을 짜깁기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 소스만도 못한 요약본이 되기도 한다. “~에 따르면” “~ 측의 주장”이라는 설명 하에 내용의 사실 여부가 미궁에 남겨진 경우도 많다.

어디선가 발생한 이슈를 단순히 옮기는 것이라면 굳이 기자라는 직업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SNS에서 더 많은 팔로어들에게 더 신속하게 소식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오늘날 무궁무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취재원이 인플루언서라면 ‘단순 전달형’ 기자는 더욱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다. 취재원 스스로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원하는 방식대로 수많은 대중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고, 이를 더 많은 기자들이 퍼나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굳이 상대할 유인도 없고, 영향력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존재가 되고야 만다.

취재가 아닌 행위는 얼마든지 기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심지어 기술로도 대체될 수 있

1) American Press Institute, Journalism as a discipline of verification, URL: <https://www.americanpressinstitute.org/journalism-essentials/verification-accuracy/journalism-discipline-verification/>(2023. 01. 30. 최종검색)

다. 최근 '챗GPT'의 등장은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었다. 시중에 공개된 정보를 물어보면 챗GPT는 놀라우리만치 일목요연하게 답변해준다. 어떤 소재에서는 정확성이 이슈가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정보를 빠르고 종합적으로 제시해 이용자들로부터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정확성이 보정된다면 공개된 자료나 발언 등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인공지능을 통해 습득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최근에는 기술의 영향이 뉴스 가치 판단과 편집 영역에도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용자들이 원하거나 볼 만한 콘텐츠를 놀라우리만치 유용하게 큐레이션해준다. 에디터의 편집은 가치 있지만, 콘텐츠와 플랫폼의 힘이 이용자의 선택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지가 충분히 위협받을 만하다.

접근 가능한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것은 제삼자나 인공지능도 하거나, 심지어 더 잘할 수 있다. 날씨나 스포츠 기사의 일부를 작성해주는 인공지능이 출시되는 까닭이다. 하지만 명확히 눈에 보이지 않는 주장에 대한 검증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진실이라면 어떠한가? 그에 대한 '취재'라는 행위는 인간만이, 많은 경우에는 기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기자라는 업을 장기적으로 지탱해주는 요소일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기관 '데이터 & 소사이어티'의 연구 디렉터 제나 버렐(Jenna Burrell)은 "챗GPT는 충분한 데이터와 알맞은 알고리즘을 갖는 것보다 '진실'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²⁾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자 본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시중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기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저널리즘이 가진 차별성

사실 검증은 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업의 본질에 가까우며, 옵션이 아닌, 갖춰야 할 기본 이슈다. 검증 없는 전달은 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널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란에서 1만 5,000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해외 소셜 미디어에 회자된 적이 있다.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이 소셜 미디어에 해당 정보를 옮겨서 논란이 됐다. 그렇다면 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 같은 이슈를 다뤄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가? 당시 NBC가 해당 이슈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1만 5,000명의 사형 선고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국영 통신사에 의하면 2명의 시위대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점, 총리의 포스팅 경과와 이에



대한 공식 입장, 이란 시위를 둘러싼 상황과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³⁾ 이것이 검증이고, 저널리즘이다.

기자들이 경쟁해야 하는 무대는 '빠른 확산'의 무대가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팔로어를 장착한 인플루언서가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지만, 기자는 때때로 느리더라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검증하고, 몰랐던 정보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세상에는 신속하게 전해야 하는 소식이 있지만, 검증을 생략하면서까지 전하는 것은 경쟁의 무대를 잘못 설정한 것이다. 그 무대에서는 빠르게 누군가를 앞서더라도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검증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가성비나 효율과 거리가 멀다.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보도'는 때때로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사가 그 길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언론사를 뒷받침하는 것은 독자의 신뢰와 인재다. 독자가 기사를 신뢰하지 않고, 기자들이 머물려고 하지 않는 조직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는 본질적인 역할로 경쟁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사가 내세워야 하는 차별성이다. 물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수반된 취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어떤 언론사들은 기사

2) Jenna Burrell (2023, 2, 9) It's time to challenge the narrative about ChatGPT and the future of journalism. Poynter, URL: <https://www.poynter.org/commentary/2023/opinion-chatgpt-will-not-replace-humans/>

3) Ben Goggin (2022, 11, 19). False claim about Iran protester executions goes viral with help from celebrities and politicians. NBC News. URL: <https://www.nbcnews.com/tech/misinformation/iran-protesters-death-sentencing-viral-verify-iran-rcna57261>



를 넘어서 취재 과정까지 전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눈에 띄게 드러내고 있다. 시애틀타임스(The Seattle Times)는 지난해 워싱턴주립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학교 측의 대응을 다룬 적이 있는데, 기사 중간에 “우리가 기사를 취재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글을 실었다.⁴⁾

“시애틀타임스는 대학들의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의 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과거 학생들, 학교 직원들, 생존자 지원자들과 전문가들 수십 명과 이야기했습니다. 워싱턴주립대의 여성들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의 사건을 다룬 법원·학교·경찰 기록 1,000장 이상을 리뷰한 기자와 연락이 닿았을 때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하략-”

기자라면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이처럼 당당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취재야말로 기자의 존재 이유

기자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사가 너무 ‘쉽게’ 작성되기 때문이다. 많은 기사에 “이

런 기사는 나도 쓰겠다”는 댓글이 달리는 것엔 이유가 있다. 어떤 현장에도 가지 않고 아무 취재원과도 소통하지 않은 채 발간되는 기사를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만 옮겨 붙인 글들이 기사라는 이름으로 뉴스 섹션을 채우고 있다.

기자 생활은 어려워야 한다. 몸이 고되고 근무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사실을 ‘어렵게’ 검증하는 것을 당연시해야 한다. 미국 텍사스트리뷴(The Texas Tribune)은 지난해 선거 보도를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취재보도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실은 적이 있는데, “보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못박았다.⁵⁾ 취재원이 말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읊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삶의 현실과 경험을 듣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맥락과 진실을 파악해 보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는 쉬운 직업이 아니다. 발생한 사실을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어렵고 고되고 지난한 과정이다.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해야 한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검증하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검증했을 때 사실은 진실에 가까워진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기사를 발간했을 때 기자의 존재 이유는 빛나고, 기사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

4) Asia Fields (2022, 3, 6). ‘Nothing should have happened to any of us.’ Seattle Times, URL: <https://www.seattletimes.com/seattlenews/times-watchdog/sexual-assault-case-at-washington-state-university-shows-gaps-in-campus-misconductsystems-title-ix/>

5) Texas Tribune Staff (2022, 8, 15). What you can expect from our elections coverage. The Texas Tribune. URL: <https://www.texastribune.org/2022/08/15/texas-tribune-elections-coverage/>